

제 1 교시

언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짜수형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항 (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 (물음)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물질에 대한 과한 욕심은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된다.
  - ② 직업을 물질 획득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
  - ③ 물질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수록 가치가 더 커진다.
  - ④ 자신의 직업에 소명 의식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 ⑤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려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 (물음) 강연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날개치기를 하는 철새는 주로 밤 시간대에 이동한다.
  - ② 날개치기를 하는 철새는 역풍이 불 때 고도를 높인다.
  - ③ 활상하는 철새는 열을 식히기에 유리한 시간대를 선택한다.
  - ④ 활상하는 철새는 쉬지 않고 날갯짓을 하며 수평으로 이동한다.
  - ⑤ 활상하는 철새는 상승 기류를 피할 수 있는 시간대를 선택한다.
- (물음) 선생님이 지적한 설문 문항이 아닌 것은?
  - ① 일상생활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② 인터넷 자료를 사용하려면 이용 가격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③ 당신은 악성 유언비어를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 ④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여 숙제를 하거나, 악성 댓글을 쓰는 것이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합니까?
  - ⑤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누구나 내려 받도록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토론에서 단계별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발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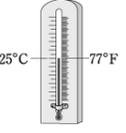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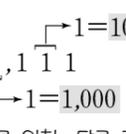
단계	조건	발언
입론	근거 제시를 통한 입장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사반 토론자 발언</li> <li>○ 발명반 토론자 발언...①</li> </ul>
반론	상대방 입론에 대한 반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사반 토론자 발언...②</li> <li>○ 발명반 토론자 발언...③</li> </ul>
주장	사례 제시를 통한 주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사반 토론자 발언...④</li> <li>○ 발명반 토론자 발언...⑤</li> </ul>

5. (물음) 발언 내용으로 보아, 토론자들이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 ① 지식 함양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 활동을 우선 장려해야 한다.
- ② 동아리의 활동 성과를 고려하여 활동비를 배정해야 한다.
- ③ 동아리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의식이 부족하다.
- ④ 동아리 활동비의 지출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
- ⑤ 동아리 활동비는 동일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어떤 대상에서 추출한 의미를 바탕으로 '여행'에 관한 글을 쓰고자 한다. 추출한 의미로부터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착상의 대상>	<추출한 의미>	<연상한 내용>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순서를 따라야 목적을 이룰 수 있음.	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여정을 따라야 한다. .... ①
 섭씨 25도 = 화씨 77도	동일한 현상도 기준에 따라 달리 말할 수 있음.	같은 풍경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 ②
 1=10, 1=1,000 다른 위치, 다른 값	위치가 다르면 그 가치가 달라짐.	여행을 다니다 보면 어느 곳이든 좋은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 ③
$1+(2 \times 3)=7$ $(1+2) \times 3=9$ 다른 묶음, 다른 값	어떤 것끼리 묶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	여럿이 여행할 때도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여행에서 얻는 의미가 달라진다. .... ④
 초침이 6바퀴 돌아야 2시로	큰 변화는 작은 변화의 누적에서 비롯됨.	여행에서 얻은 작은 체험들이 쌓이면, 현재와는 달리 경험이 풍부한 나로 바뀌게 된다. .... ⑤

7. 다음은 '청소년 우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기사를 쓰기 위해 정리한 메모의 일부이다. 이를 토대로 쓸 기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b>1. 인터뷰 내용</b> ○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학생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므로 청소년증을 발급 받고 싶지 않음. - 전우치(17세, 근로 청소년) ○ 공공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주었으면, 우대 혜택을 주는 민간 시설, 기업도 늘어나길. - 심청(24세, 대학생)																
<b>2. 관련 자료 조사</b> ○ 청소년기본법: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이라 함. ○ 청소년복지지원법: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을 소지한 18세 이하 대상. 주로 공공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 부여. 혜택이 제한적.	<b>3. 설문 조사 결과</b> 앞으로 가장 우대되어야 할 영역 (단위: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교통수단 이용</th> <th>문화·여가 활동</th> <th>소비 활동</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고등학생</td> <td>58.9</td> <td>20.9</td> <td>16.7</td> <td>3.5</td> </tr> <tr> <td>대학생</td> <td>53.4</td> <td>25.5</td> <td>13.6</td> <td>7.5</td> </tr> </tbody> </table>	구분	교통수단 이용	문화·여가 활동	소비 활동	기타	고등학생	58.9	20.9	16.7	3.5	대학생	53.4	25.5	13.6	7.5
구분	교통수단 이용	문화·여가 활동	소비 활동	기타												
고등학생	58.9	20.9	16.7	3.5												
대학생	53.4	25.5	13.6	7.5												
<b>4. 국내외 현황</b> ○ 국내: 정부, 지방 자치 단체, 민간 기업 간 상호 협조 체계 미흡 및 관련 예산 부족. ○ 복지 선진국: 주로 2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각종 보조금 지급(A국),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청소년 카드 발급(B국) 등 실질적 사회 보장 제도의 성격을 지님.																

- ① 현행 제도가 청소년층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짐을 지적한다.
- ② 청소년 우대 정책에 민간 시설과 기업이 동참하도록 유인하는 제도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 ③ 수혜 대상이 되는 청소년층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청소년 우대 정책을 마련해야 함을 제시한다.
- ④ 기존의 청소년증 제도가 지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우대 혜택을 확대할 것을 제시한다.
- ⑤ 공공시설의 우대 규정이 민간 시설에 비해 미비하고 우대 혜택이 교통수단 이용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8. 다음의 공모전에 응모하기 위해 <보기>와 같이 개요를 작성하였다. 개요의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린 IT 운동의 필요성과 실천 방안을 알리는 원고 공모**

그린 IT 운동이란, 정보 통신 분야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사회적 운동입니다.

<보 기>

**제목: 그린 IT 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I. 그린 IT 운동의 개념 ..... ㉠

II. 그린 IT 운동의 실천 방안

1. 기술 및 기기 개발 차원

가. 획기적인 정보 통신 기술 개발 ..... ㉡

나. 폐기물을 재활용한 정보 통신 기기 개발

2. 기기 이용 차원

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기 이용

나. 빈번한 기기 교체 자제

다. 성과에 대한 포상 제도 마련 ..... ㉢

3. 정책적 차원

가.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대책 마련

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 ㉣

III. 그린 IT 운동 정착을 위한 당국의 정책 개발 촉구 ... ㉤

- ① ㉠은 공모의 취지를 고려해, '그린 IT 운동의 개념과 필요성'으로 고친다.
- ② ㉡은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정보 통신 기술 개발'로 바꾼다.
- ③ ㉢은 상위 항목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II-3'의 하위 항목으로 옮긴다.
- ④ ㉣은 글의 주제에서 벗어나므로, '기업과 소비자의 의식 전환'으로 바꾼다.
- ⑤ ㉤은 글 전체의 흐름으로 보아, '그린 IT 운동 확산을 위한 사회 공동의 노력 촉구'로 바꾼다.

[9~10] 다음은 지역 사회와 연계한 학교 축제 프로그램의 제안서 초고이다. 9번과 10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프로그램명	공공건물 벽화 그리기
제안 단체	△△고등학교 미술반, 지역 문화 탐방반
제안 이유	우리 ○○면에는 칠이 벗겨진 벽을 그대로 ㉠ 배치한 건물이 많습니다. 특히 면사무소나 보건소는 지저분한 벽 때문에 건물뿐 아니라 주변 공간까지 황폐해 보입니다. 저희는 이런 공공건물에 생동감을 불어넣고자 벽화 그리기를 제안합니다. ㉡ 그래서 주민들이 자주 찾고 싶어 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제안 내용	벽화에는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을 담아야 합니다. ㉢ 그런데 저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주제와 소재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축제 기간에는 각자 역할을 나누어 ㉣ 밑그림을 그리고 채색을 할 것입니다. 벽화를 완성한 후에는 이를 축하하는 행사도 마련하려 합니다. 저희가 벽화를 그릴 건물을 지정해 주십시오. 또 이 활동을 마을 축제와 연계하여 ㉤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기대 효과	[A]

9. 위 글을 고쳐 쓰기 위한 구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맥으로 보아 ㉠을 ‘방치한’으로 바꿔야겠군.
- ② 문장 간의 의미 관계를 고려하여 ㉡과 바로 앞 문장을 맞바꾸어야겠군.
- ③ ㉢을 ‘이를 위해’로 바꾸면 앞 문장과의 연결이 자연스러워지겠군.
- ④ 중복된 내용을 생략하려면 ㉣을 ‘밑그림과 채색을 할 것’으로 바꿔야겠군.
- ⑤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을 ‘추진할’로 바꿔야겠군.

10. [A]에 넣을 표현으로 <보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은? [1점]

<보 기>
○ 참여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를 드러낼 것
○ 지역 주민들에게 가져올 생활상의 변화를 제시할 것

- ① 이 활동은 학생들에게 마을에 대한 자부심과 협동 정신을 심어 줍니다. 개선된 생활공간에서 주민들은 서로 활발히 교류하며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이게 될 것입니다.
- ② 벽화 그리기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축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런 교육적인 활동에 주민들이 함께한다면 그 의미가 더욱 클 것입니다.
- ③ 그동안 주민들은 마을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낙후된 생활환경 때문에 삶에 활력이 없었습니다. 벽화 그리기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 ④ 벽화 그리기는 학교 축제와 마을 축제를 연계하기에 적합한 활동입니다. 앞으로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더 많은 학생이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 ⑤ 우리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 이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보기>의 예를 통해, 문맥 속에서 인칭 대명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보 기>
㉠ 내가 부탁 하나 할게요. ㉡ 나는 ㉢ 그쪽에서 ㉣ 우리 아버지의 책을 맡아 주었으면 해요. 이걸 ㉤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답니다. 아버지께서는 ㉥ 당신의 책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시지요. ㉦ 당신에게 그 책을 맡기시려는 것을 보니 당신을 무척 믿으시는 것 같아요.

- ① ㉠과 ㉡을 비교해 보니 ㉠은 ‘나의’를 줄인 말이겠군.
- ②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같아.
- ③ ㉤은 ㉡과 ㉣을 아울러 가리키는 말이야.
- ④ 앞 문장에 나온 말을 반복하는 건 어색하니까 ㉤은 적절한 대명사로 바꿔야 해.
- ⑤ ㉥은 높임법에 맞지 않으니 ‘자기’로 바꿔야 해.

12. <보기>와 같이 적절한 단어를 선택한 후 각 단어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흉내/시늉 기. 아이들은 장터에서 장사꾼 (흉내, 시늉)을/를 냈다. 니. 아이들을 불러서 공부를 하랬더니 (흉내, 시늉)만 했다. 디. 아이가 우는 (흉내, 시늉)을/를 했다.
○ 조성/조장 리. 장터에서부터 명절 분위기가 서서히 (조성, 조장)된다. 미. 과소비를 (조성, 조장)하는 광고는 자제해야 한다. 비. 사람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 조장)하여 이득을 보려는 장사꾼이 있다.

- ① ‘기’와 ‘디’를 보니, ‘흉내’는 ‘남을 따라 함’을, ‘시늉’은 ‘움직임을 꾸며 함’을 뜻하네.
- ② ‘기~디’를 보니, 호응하는 서술어를 통해서도 ‘흉내’와 ‘시늉’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겠어.
- ③ 내용상 ‘기’ 뒤에 ‘니’이 연결된다면, ‘니’의 ‘시늉’ 앞에는 ‘장사꾼’이 생략되었겠네.
- ④ ‘리’와 ‘미’를 보니, ‘조성’은 ‘만들어 이룸’을, ‘조장’은 ‘더 하게 함’을 뜻하네.
- ⑤ ‘비~비’를 보니, ‘조장’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 어렵겠군.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의 문장 부호는 독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보조적 기호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문장의 의미를 명백하게 하거나 문장을 구별하여,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된다. 형태나 기능의 차이는 있지만, 옛 문헌에도 오늘날의 문장 부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었다. 띄어쓰기를 거의 하지 않았던 옛 문헌에서 이러한 부호들은 더욱 요긴하게 쓰였다.

현대의 마침표나 쉼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 있다. ‘.’은 찍힌 위치에 따라 그 기능이 달랐다. 세로쓰기를 했던 옛 문헌에서 글자의 오른쪽 아래에 찍힌 점은 구점(句點)이라 하는데, 마침표와 비슷한 기능을 하였다. 글자 아래쪽에 찍힌 점은 두점(讀點)이라 하는데, 쉼표와 비슷한 기능을 하였다. ‘구두점’이란 말은 여기서 유래한다. 단락이 끝나고 공백이 오는 경우와 같이 문장이 끝났음이 명백할 때에는 문장 뒤에 구점이 생략된다. 『훈민정음해례』나 『용비어천가』 등에 이러한 구두점이 사용되었다.

‘.’은 새로운 단위의 내용이 시작될 때 쓰였다. 각각의 예문이나 단락, 조항 등이 시작하는 곳이나 화제가 전환되는 곳에 사용되었다.

주석을 달기 위해서는 【 】가 사용되었다. 단어나 구절의 뜻을 풀이하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 【 】 안에 그 내용을 넣었다. 오늘날의 ( ), [ ]와 기능이나 형태가 유사하다. 다만 구점과 마찬가지로 단락이 끝나는 위치에서는 【 】가 생략된다.

㉠ ‘ㄴ’, ‘ㅅ’, ‘ㅈ’은 앞 글자나 앞 어구와 동일함을 표시해주는 부호인데, 인쇄본보다는 손으로 쓴 필사본에 더 많이 나타난다. 한편 사전류에서는 설명의 대상인 표제어가 용례로 반복되어 나타날 때 ‘—’로 대체하였다. ‘ㄴ’ 등은 바로 앞에 오는 글자나 어구의 반복만 나타낼 수 있는 데 비해, ‘—’는 위치에 상관없이 표제어에 해당하는 것이 그 자리에 들어감을 나타낸다.

이러한 부호들은 한문 문화권에서 널리 사용되던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를 사용하여 우리의 문자 생활을 다채롭고 정확하게 하였다. 구점은 한글 맞춤법 규정에 포함되어, 세로쓰기를 할 때 마침표로 사용된다. ‘.’, ‘ㄴ’은 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지금도 쓰이고 있다.

※ 이 글에 쓰인 옛 문헌의 부호들은 가로쓰기에 맞게 방향을 바꿔 제시한 것이다.

13. 위 글의 중심 내용은?

- ① 옛 문헌에 쓰인 부호의 기원
- ② 옛 문헌에 쓰인 부호의 변화 과정
- ③ 옛 문헌에 쓰인 부호의 현대적 수용
- ④ 옛 문헌에 쓰인 부호의 종류와 기능
- ⑤ 옛 문헌과 현대 문헌의 문장 부호 비교

14. ㉠을 사용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 ② 쓰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 ③ 띄어쓰기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 ④ 문장 간의 관계를 잘 나타내기 위해
- ⑤ 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15. <보기>는 현대 어휘 용례 사전의 일부이다. 위 글을 읽고 옛 문헌에 사용된 부호를 적용해 본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오늘**

㉠ 고량진미도 나물국부터 시작하고, 천 리 길도 문 앞에서  
 부터 시작하는 법. 나의 오늘 역시 내일의 희망을 향해  
 걸어가는 첫걸음이다. - 이규보(고려 시대의 문인)

㉡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 ① 옛 문헌이라면 ㉠의 ‘,’ 대신에 두점을 찍었겠군.
- ② 옛 문헌이라면 ㉡의 ‘.’ 대신에 구점을 찍었겠군.
- ③ 옛 문헌이라면 ㉠의 ‘오늘’ 대신에 ‘—’를 사용했겠군.
- ④ 옛 문헌이라면 ㉡의 ‘)’ 대신에 ‘】’를 사용했겠군.
- ⑤ 옛 문헌이라면 ㉡의 ‘㉠’ 대신에 ‘.’을 사용했겠군.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악은 시간 예술이다. 회화나 조각과 같은 공간 예술과는 달리, 음악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는 음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작곡가들은 그 방법의 하나로 반복을 활용했다. 즉 반복을 통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기억하여 악곡의 전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반복의 양상과 효과는 <비행기>와 같은 동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동요에서는 반복되는 선율이 노래를 하나로 묶어 주고 있다.



무반주 성악곡을 즐겨 부른 르네상스 시대의 다성 음악 양식에서는 입체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모방'을 선택했다. 이때 ㉠ 모방은 노래의 시작 부분에서 돌림 노래와 비슷한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구현된다. 예를 들어 소프라노 성부의 노래에 뒤이어 알토 성부가 시간 차를 두고 같은 선율로 시작하는 반복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돌림 노래처럼 시작한 후에는 각 성부가 서로 다른 선율로 노래를 이어 간다. 이로써 다성 음악 양식에서는 성부의 독립성을 추구하면서도 통일감을 느끼게 해 주는 짜임새가 만들어졌다.

다성 음악의 시대를 지나 바로크 시대로 들어서면 성악 음악을 구현하는 데 모방은 더 이상 효과적인 기법이 아니었다. 이제 음악가들은 화성을 중시해서, 여러 성부로 이루어진 음악을 연주하기보다 화성 반주에 맞추어 하나의 선율을 노래하는 짜임새를 선호하게 되었다. 화성 반주의 악보 중에는 저음 성부에서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고음 성부에서는 선율이 반주에 맞춰 변화되는 이른바 장식적 변주가 나타난다. 이로써 반복의 일관성과 변주의 다양성을 통해 조화된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고전 시대에는 반복이 악곡의 형식을 결정하는 요소로 사용된다. 이 시대에 널리 쓰인 소나타는 주제가 다른 여러 악장이 음악적 대조를 이루는데, 마지막 악장은 첫 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음악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악장의 이런 성격을 표현하는 데에는 론도 형식이 적합하다. 이 형식은 악장의 주제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 사이사이에 이와 대조되는 새로운 주제들을 삽입하는 방식이다.

각 시대의 작곡가는 입체적인 모방, 장식적인 변주, 형식적인 반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간의 흐름 속에 구현된 악곡 전체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결국 음악은 시대마다 그 양상은 다르지만, 반복을 기본 원리의 하나로 활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16. 위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 ① 반복은 각 시대의 음악 양식에 따라 양상을 달리한다.
- ② 선율의 반복은 노래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요소가 된다.
- ③ 돌림 노래는 무반주 성악곡에서 변주의 방식으로 사용된다.
- ④ 다성 음악의 시대를 지나 화성을 중시하는 시대가 시작된다.
- ⑤ 반복 기법은 단순한 노래부터 복잡한 악곡까지 널리 사용된다.

17. ㉠의 방법에 따라 <보기>를 사용하여 3성부의 악곡을 만들 때, 도입부의 짜임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① 성부1 A B, 성부2 A D, 성부3 A C
- ② 성부1 A B, 성부2 A C, 성부3 A D
- ③ 성부1 A B, 성부2 C D, 성부3 B A
- ④ 성부1 C D, 성부2 D A, 성부3 A B
- ⑤ 성부1 C D, 성부2 A B, 성부3 B C

18. 위 글과 <보기>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앵무조개 껍데기의 무늬는 반복의 미(美)를 보여 준다. 1:1.618의 황금 비율로 된 빈 종이도 아름다운데, 이 비율로 된 형태가 크기를 달리하며 반복되면 동일과 변화라는 또 다른 미감이 생긴다. 이런 반복과 변화의 미는, 르네상스의 건축 디자인에서도 볼 수 있다. 당시 건축물에서 문과 창이 같은 형태에서는 반복의 미를, 다른 크기에서는 색다른 변화의 미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르네상스 건축가들은 이런 건축물을 세련되게 작곡된 음악에 비유해 '조화'라 불렀다.

- ① 반복의 미적 쾌감은 음악이 아닌 다른 예술 양식이나 자연물에서도 느낄 수 있겠군.
- ② 소나타 악장의 대조는 황금 비율로 된 빈 종이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과 유사한 것이겠군.
- ③ 장식적 변주는, 크기를 달리하며 변화되는 문과 창에서 느껴지는 색다른 미감과 유사한 것이겠군.
- ④ 바로크 성악 음악에서 화성 반주의 저음 성부는 앵무조개 껍데기 무늬에서 느껴지는 미와 통하겠군.
- ⑤ '조화'라 불리는 건축물에서 동일성과 변화가 공존하는 것처럼 음악에서도 이런 양면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군.

19. ㉡은 단어의 반복을 통해 특정한 의미 효과를 나타낸다. 다음 중 ㉡의 효과와 유사한 것은?

- ① 공간을 곡식으로 가득가득 채웠다.
- ② 노랫소리가 멀리멀리 울려 퍼진다.
- ③ 가뭄으로 논밭이 바싹바싹 타들어 간다.
- ④ 시간이 없으니까 대강대강 급한 일부터 끝내자.
- ⑤ 발을 옮겨 놓을 때마다 걸음걸음 치마폭이 너풀거린다.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윽고 서씨의 몸은 성벽의 저 너머로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나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서씨가 성벽 위에 몸을 나타내고 그리고 성벽을 이루고 있는 커다란 금고만 한 돌덩이를 그의 한 손에 하나씩 집어서 번쩍 자기의 머리 위로 치켜 올린 것이었다. 지렛대나 도르래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혹은 여러 사람이 달라붙지 않고서는 들어 올릴 수 없는 무게를 가진 돌을 그는

[A] 맨손으로 들어 올린 것이었다. 그는 나에게 보라는 듯이 자기가 들고 서 있는 돌을 여러 차례 흔들며 보이고 나서 방금 그 돌들이 있던 자리를 서로 바꾸어서 그 돌들을 곱게 내려 놓았다.

나는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 고담(古談) 같은 데서 등장하는 역사(力士)만은 나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지만 이 한밤중에 바로 내 앞에서 푸르게 빛나는 조명을 온몸에 받으며 성벽을 디디고 우뚝 솟아 있는 ㉠ 저 사내를 나는 무엇이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 몰랐다.

역사, 서씨는 역사다, 하고 내가 별수 없이 인정하며 감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그 귀기(鬼氣)에 찬 광경을 본 무서움에 떨고 있는 동안에 그는 어느새 돌아왔는지 유령처럼 내 앞에서 자랑스러운 웃음을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

서씨는 역사였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았다는 서씨의 얘기를 들었다.

그는 중국인의 남자와 한국인의 여자 사이에서 난 혼혈아였다. 그의 선조들은 대대로 중국에서 이름 있는 역사들이었다. 족보를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수가 있다고 했다. 그네들이 가졌던 힘, 그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였고 유일한 유물이었던 모양이었다. 그 무형의 재산은 가보로서 후손에게 전해졌다. 그것으로써 그들은 세상을 평안하게 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영광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

[B] 나 이 서씨에 와서도 그 힘이 재산이 될 수는 없었다. 이제 와서 그 힘은 서씨로 하여금 공사장에서 남보다 약간 더 많은 보수를 받게 하는 기능밖에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서씨는 그 약간 더 많은 보수를 거절하기로 했다. 남만큼만 벽돌을 날랐고 남만큼만 땅을 폈다. ㉡ 선조의 영광은 그렇게 하여 보존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씨는 아무도 나다니지 않는 한밤중을 택하고 동대문의 성벽에서 그 힘이 유지되고 있음을 명부(冥府)의 선조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낮에 서씨가, 동대문의 바로 곁에 서서 행인들 중 누구 한 사람도 성벽을 이루고 있는 돌 한 개의 위치 변화에 관심을 보내지 않고 지나다닐 때, 옮겨진 돌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을 나는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그것이 서씨가 간직하고 있는 자기였고 내가 그와 접촉하면 할수록 빨려 들어갈 수 있었던 깊이였던 모양이었다.

그 집—그들 많은 얼굴들이 살던 그 집에서 나는 나 자신 속에서 꿈틀거리는 안주(安住)에의 동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헤어날 길 없는 생활 속에 내가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곳을 뚝 떠나서 이 한결같은 곡이 한결같은 악기로 연주되는 집에 오자 그것은 견디어 낼 수 없는 권태와 이 집에 대한 혐오증으로 형체를 바꾸는 것이었다. ㉢ 나란 놈은 아마 알 수 없는 놈인가 보다.

피아노 소리가 그쳤다. 무의식중에 나는 방바닥에서 팔목시계를 집어 올렸다.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했던가를 깨닫자 나는 쓴웃음이 나왔다. ㉣ 피아노가 그친 시간을 재 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일도 그 피아노가 그친 시간을 재서 그 시간들을 비교하며 이 집에 대한 혐오증의 이유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자신에 대해서 어이가 없음을 느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그것은 조금 전에 내가 서씨의 그 거짓 없는 행위를 회상했던 덕분이 아니었을까? 서씨가 내게 보여 준 게 있다면 다소 몽상적인 의미에서의 성실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이 양옥 속의 생활을 비판하는 데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고 내게 생각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집으로 옮겨온 다음날의 저녁, 식사 시간도 잡담 시간도 지나고 ㉤ 모든 사람들의 공부 시간이 되자 나는 홀로 내 방의 벽에 기대앉아서 기타를 튕겨 보기 시작했던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 불현듯이 ㉥ 기타를 켜고 싶어지는 때가 있는 법이다. 그것은 감정의 요구이지만 그렇다고 비난할 건 못 되지 않는가. 내가 줄을 고르며 음을 시험해보고 있는데 다색(茶色) 나왕으로 된 내 방문이 열리며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리고 ㉦ 나의 기타 켜는 시간은 오전 열시부터 한 시간 동안 할머니와 며느리가 ㉧ 미싱을 돌리는 같은 시각으로 배치되었던 것이다. ㉨ 위대한 가풍이 내게 작용한 첫 번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내가 ㉩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이용해 본 적은 하루도 없었다. 흥이 나지 않아서였다고 하면 적당한 표현이 되겠다.

- 김승옥, 「역사(力士)」 -

20.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어휘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한다.
- ②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 ③ 인물들의 서로 다른 특성을 제시하며 서술자의 시각을 드러낸다.
- ④ 현학적인 표현을 주로 사용하여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 ⑤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상황을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2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서씨'가 보여 준 모습은 '나'에게 경이로운 것이었다.
- ② ㉡: 자신의 힘을 더욱 유용하게 쓰기 위해 힘을 비축해야 했다.
- ③ ㉢: '나'조차도 '나'의 감정 변화를 제대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 ④ ㉣: 이 집안의 규칙이 얼마나 정확히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 ⑤ ㉤: '나'의 행동이 이 집안의 규칙에 의해 제약되기 시작했다.

22. ㉠~㉡ 중 문맥상 함축하는 의미가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23. <보기>를 바탕으로 [A], [B]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김승옥은 「역사」에서 일반적 통념의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사실성을 추구하였다. 이 작품의 창작 의도를 밝힌 글에서 그는, “우리의 눈에는 비사실적인 것도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했다. 작품 속의 ‘동대문 성벽의 돌덩이 옮겨 놓기’라는 소재는, 이를테면 ‘외국인의 눈’을 통해 새롭게 ‘변형’된 것이다. 작가는 ‘변형’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 작중 상황에 실감을 주는 소설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 ① ‘금고만 한 돌덩이’는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비사실적인 소재이겠군.  
 ② ‘동대문’이라는 낯선 배경을 제시하여 독자들이 느끼는 실감을 떨어뜨리고 있군.  
 ③ ‘서씨’ 가계의 내력을 제시한 것은 ‘서씨’의 행위에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이군.  
 ④ ‘푸르게 빛나는 조명’은 ‘서씨’의 신성한 면모를 일상적인 모습으로 ‘변형’하려는 의도에서 설정된 것이겠군.  
 ⑤ ‘나’가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는 것은 ‘돌덩이 옮겨 놓기’가 사실이 아니라 환상이었음을 암시하고 있군.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최근 들어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략의 하나로 창조 도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창조 도시는 창조적 인재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이다. 즉 창조 도시는 인재들을 위한 문화 및 거주 환경의 창조성이 풍부하며, 혁신적이고도 유연한 경제 시스템을 ㉠ 구비하고 있는 도시인 것이다.  
 (나) 창조 도시의 주된 동력을 창조 산업으로 볼 것인가 창조 계층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소 엇갈리고 있다. 창조 산업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창조 산업이 도시에 인적·사회적·문화적·경제적 다양성을 불어넣음으로써 도시의 재구조화를 가져오고 나아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한다고 주장한다. 창의적 기술과 재능을 소득과 고용의 원천으로 삼는 창조 산업의 예로는 광고, 디자인, 출판, 공연 예술, 컴퓨터 게임 등이 있다.  
 (다) 창조 계층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개인의 창의력으로 부가가치를 ㉡ 창출하는 창조 계층이 모여서 인재 네트워크인 창조 자본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도시는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창조 계층을 끌어들이고 유지하는 것이 도시의 경쟁력을 ㉢ 제고하는

관건이 된다. 창조 계층에는 과학자, 기술자, 예술가, 건축가, 프로그래머, 영화 제작자 등이 포함된다.

- (라) 창조성의 근본 동력을 무엇으로 보든, 한 도시가 창조 도시로 성장하려면 창조 산업과 창조 계층을 유인하는 창조 환경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창조 도시에 대한 논의를 ㉣ 주도한 랜드리는, 창조성이 도시의 유전자 코드로 바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적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개인의 자질, 의지와 리더십,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과의 접근성, 조직 문화, 지역 정체성, 도시의 공공 공간과 시설, 역동적 네트워크의 구축 등이 그것이다.  
 (마) 창조 도시는 하루아침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추진 과정에서 위험이 ㉤ 수반되기도 한다. 창조 산업의 산출물은 그것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와 가치 평가를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창조 계층의 창의력은 표준화되기 어렵고 그들의 전문화된 노동력은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창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 고유의 특성을 면밀히 고찰하여 창조 산업, 창조 계층, 창조 환경의 역동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

24. (가)~(마)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창조 도시의 개념  
 ② (나): 창조 도시의 동력을 창조 산업으로 보는 관점  
 ③ (다): 창조 도시의 동력을 창조 계층으로 보는 관점  
 ④ (라): 창조 환경의 필요성과 구성 요소  
 ⑤ (마): 창조 도시의 문제점과 전망

25.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A시’와 ‘B시’에 대해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A시는 제조업 퇴조에 따른 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의 산업화’를 시도하기로 했다. A시 시장은 사업 추진체를 구성하고, 이해 당사자 설득에 힘써 왔다. 공장을 미술관으로 개조하고 보행자 전용의 아름다운 현수교를 세워 관광객을 유치하고 고용도 창출하고 있다.
- B시는 창의적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 많다. 대기업 부설 연구 기관이 많아 자본도 많이 투입된다. 그러나 이 연구 기관들은 지역 산업체와의 교류가 부족해 경제적 부(富)가 지역으로 환류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화된 연구 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 ① A시는 문화 및 거주 환경의 창조성을 중시하고 있군.  
 ② A시는 지도자의 의지와 리더십을 바탕으로 창조 환경을 마련하고 있군.  
 ③ B시는 창조 환경의 요소 중 개인의 자질이 우수하군.  
 ④ B시는 창조 계층과 산업 환경 간에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군.  
 ⑤ A시와 B시 모두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창조 도시에 접근하고 있군.

26.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창조 계층의 창의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능력을 표준화해야 한다.
- ② 창조 도시에는 문화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 ③ 창조 산업과 창조 계층이 갖추어져야 창조 환경이 마련된다.
- ④ 창조 도시를 위해서는 기존 환경을 단시간에 개조해야 한다.
- ⑤ 창조 산업은 미래 예측성과 성공 가능성이 크다.

27. ㉠~㉡와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갖추고                      ② ㉡: 늘리는
- ③ ㉢: 높이는                      ④ ㉣: 이끈
- ⑤ ㉤: 따르기도

[28~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땀은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나) 크낙산 골짜기가 온통 연록색으로 부풀어 올랐을 때  
 그러니까 신록이 우거졌을 때  
 그곳을 지나가면서 나는  
 미처 몰랐었다

뒷절로 가는 길이 온통  
 주황색 단풍으로 물들고 나뭇잎들  
 무더기로 바람에 떨어지던 때  
 그러니까 낙엽이 지던 때도  
 그곳을 거닐면서 나는  
 느끼지 못했었다

이렇게 한 해가 다 가고  
 눈발이 드문드문 흩날리던 날  
 앙상한 대추나무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 나뭇잎 하나  
 문득 혼자서 떨어졌다

저마다 한 개씩 돌아나  
 여럿이 모여서 한여름 살고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  
 그 많은 나뭇잎들  
 사라지는 것을 보여 주면서

- 김광규, 「나뭇잎 하나」 -

(다) 삼경에 못 든 잠을 사경 말에 비로소 들어  
 상사(相思)하던 우리 님을 꿈 가운데 해후하니  
 시름과 한(恨) 못다 일러 한바탕 꿈 흩어지니  
아리따운 고운 얼굴 곁에 얼핏 앓았는 듯  
 어화 아득하다 꿈을 생시 삼고지고  
 잠 못 들어 탄식하고 바삐 일어나 바라보니  
 구름산은 첩첩하여 천리몽(千里夢)을 가려 있고  
 흰 달은 창창하여 두 마음을 비추었다  
 좋은 기약 막혀 있고 세월이 하도 할사  
 옛그제 꽃이 버들 곁에 붉었더니  
 그 곁에 훌훌하여\* 잎에 가득 가을 소리라  
 새벽 서리 지는 달에 외기러기 슬피 울 제  
 반가운 님의 소식 행여 올까 바라더니  
 아득한 구름 밖에 빈 소리뿐이로다  
 지리하다 이 이별이 언제면 다시 볼까  
 어화 내 일이야 나도 모를 일이로다  
 이리저리 그리면서 어이 그리 못 가는고  
 약수(弱水)\* 삼천 리 멀단 말이 이런 곳을 일렀구나  
 산 머리에 조각달 되어 님의 낮에 비추고자  
 바위 위에 오동 되어 님의 무릎 베고자  
 빈산에 잘새 되어 북창(北窓)에 가 울고자  
 지붕 위 아침 햇살에 제비 되어 날고지고  
 옥창(玉窓)의 앵두화에 나비 되어 날고지고  
 태산이 평지 되도록 금강이 다 마르도록  
 평생 슬픈 회포 어디에 견주리오

[A]

- 작자 미상, 「춘면곡(春眠曲)」 -

\* 훌훌하여: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 약수: 신선이 사는 땅에 있다는 강 이름.

2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 ② 관조적인 자세로 대상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예찬한다.
- ④ 자연의 변화를 표현하여 화자의 미래를 암시한다.
- ⑤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서는 시상이 확산되고 있다.
- ② ㉠과 ㉡ 모두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화자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 ④ ㉡은 ㉠에 비해 역동적인 느낌이 두드러진다.
- ⑤ ㉠은 사실의 기술이, ㉡은 관념의 표현이 부각된다.

30. (가)와 (다)를 대응시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첫 번째 '아아'와 (다)의 두 번째 '어화'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비탄의 표현으로 볼 수 있군.
- ② (가)의 '차디찬 티끌'과 (다)의 '새벽 서리'는 허무하게 깨진 인연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통하네.
- ③ (가)의 '꽃다운 님의 얼굴'과 (다)의 '아리따운 고운 얼굴'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 ④ (가)의 '눈물'과 (다)의 '시름과 한'은 이별로 인해 생겨난 슬픔이라 할 수 있어.
- ⑤ (가)의 '다시 만날 것'과 (다)의 '좋은 기억'은 '님'과 만나고 싶은 소망과 관련되겠군.

31.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님의 침묵」에서 '노래'와 '침묵'은 화자와 '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시어이다. 한용운은 시 「반비레」에서 “당신이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 때에 당신의 노랫가락은 역력히 들립니다그려 / 당신의 소리는 침묵이에요”라고 했다. 침묵이라는 부재의 상태에서 '님'의 실재를 본 것이다. 화자는 '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데, 시 「나의 노래」에서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계신 님에게 들리는 줄”을 안다고 했다. 이는 화자가 자신의 노래에 '님'과 근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노래가 제 곡조를 못 이긴다는 것은 '님'이 침묵하는 상황을 화자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야.

- ②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것은 화자가 부재 속에 실재하는 '님'과 깊이 교감한다는 뜻이야.
- ③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나아간다고 한 데서 '사랑의 노래'가 자연 친화적임을 알 수 있어.
- ④ 침묵을 휩싸고 도는 노래가 '사랑의 노래'라는 것은 침묵이 끝나야 사랑이 비로소 시작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
- ⑤ 침묵하는 '님'에게서 노랫가락을 역력히 듣는다는 데서 '사랑의 노래'가 화자의 노래가 아니라 '님'의 노래임을 알 수 있어.

32.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1연, 2연에서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대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② 1~3연에서 '골짜기'→'길'→'대추나무'→'나뭇잎 하나'로 시적 대상이 바뀌면서 화자와 대상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 ③ 1~4연에서 '그러니까', '문득', '마침내'와 같은 부사는 독자로 하여금 화자의 인식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 ④ 4연에서 '저마다 한 개씩'이라는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세상과 화합할 수 없는 존재의 고뇌를 강조하고 있다.
- ⑤ 4연에서 화자는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자연물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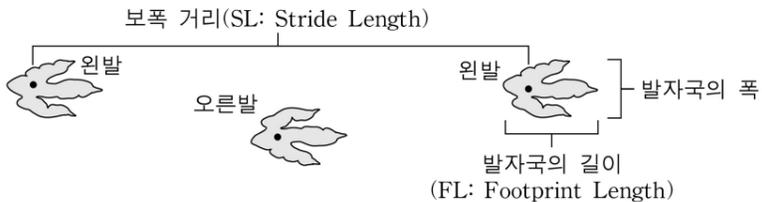
<보 기>

시조나 가사에는, 임과 헤어져 있는 화자가 어떤 특정한 자연물로 다시 태어나서 임의 곁에 머물고 싶다는 진술이 흔히 나타난다. 이러한 진술은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기 위한 관습적 표현인데, 그 속에는 당대인들의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다. 인간과 자연이 깊은 관련을 맺으며 조화를 이룬다는 인식, 현세의 인연이 후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순환적 인식 등이 그것이다. 시가에 담긴 이러한 인식은 화자가 현실의 고난이나 곁핍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 ① 관습적인 표현을 활용한 것은 개인적 정서를 보편적인 것으로 느끼게 하는 데 효과적이었겠어.
- ② 비슷한 의미 구조를 지니는 구절을 거듭 제시함으로써 화자의 소망이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어.
- ③ '오동', '제비', '나비' 등이 사용된 데서, 인간과 자연이 관련되어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엿볼 수 있어.
- ④ '조각달'이나 '잘새' 같은 소재에는 '님'과 함께 크고 넓은 세계로 도약하려는 화자의 희망이 담겨 있어.
- ⑤ 자연물로 변해서라도 '님'과 만나려 하는 것을 보니 화자가 '님'과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어.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나라의 남해안 일대에서는 중생대 백악기에 살았던 공룡의 발자국 화석이 1만 개 이상 발견되었다. 이 화석들은 당시 한반도에 서식했던 공룡들의 특성을 밝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공룡 발자국 연구에서는 발자국의 형태를 관찰하고, 발자국의 길이와 폭, 보폭 거리 등을 측정한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여 공룡의 종류, 크기, 보행 상태 등을 알아낸다.



우선 공룡 발자국의 형태로부터 공룡의 종류를 알아낸다. 남해안 일대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은 초식 공룡인 용각류와 조각류, 육식 공룡인 수각류의 것으로 대별된다. 용각류의 발자국은 타원형이나 원형에 가까우며 앞발이 뒷발보다 작고 그 모양도 조금 다르다. 이들은 대체로 4족 보행렬을 나타낸다. 조각류의 발자국은 세 개의 뭉툭한 발가락이 앞으로 향해 있고 발뒤꿈치는 완만한 곡선을 이룬다. 이들은 대개 규칙적인 2족 보행렬을 보인다. 수각류의 발자국은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세 개의 발가락과 좁고 뾰족한 발뒤꿈치를 보인다. 조각류처럼 2족 보행렬을 나타내지만 발자국의 길이가 발자국의 폭보다 더 길다는 점이 조각류와 다르다.

다음으로 공룡 발자국의 길이로부터 공룡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 ‘발자국의 길이(FL)’에 4를 곱해 ‘지면으로부터 골반까지의 높이(h)’를 구하여  $h = 4FL$ ,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4족 보행 공룡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뒷발자국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단, h와 FL의 비율은 공룡의 성장 단계나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보폭 거리(SL)’는 보행 상태를 추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여기서 SL은 공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SL을 h로 나눈 ‘상대적 보폭 거리  $[SL/h]$ ’를 사용한다. 학자들은  $SL/h$ 의 값이 2.0 미만이면 보통 걸음, 2.0 이상 2.9 이하이면 빠른 걸음이었을 것으로, 2.9를 초과하면 달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해안 일대에서는 공룡 발자국 외에도 공룡의 뼈나 이빨, 다른 동식물의 화석 등도 발견된다. 공룡 발자국과 함께 발견되는 물결 자국이나 건열\* 등의 퇴적 구조를 분석하여 발자국이 만들어진 당시의 기후나 환경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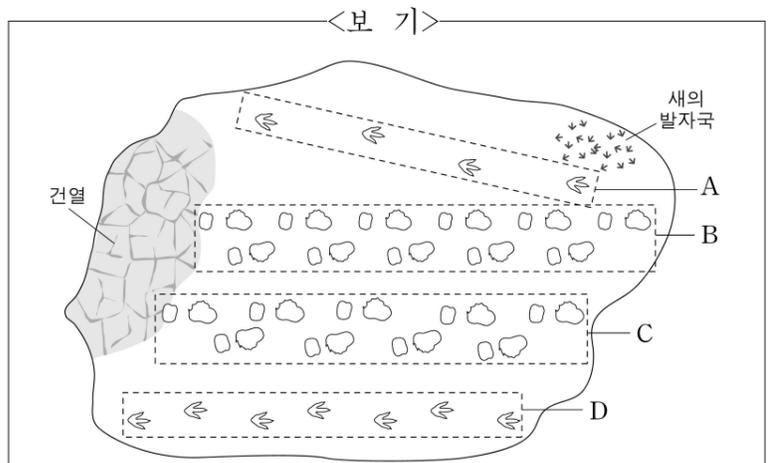
\* 건열: 건조한 대기로 인해 땅 표면이 말라서 갈라진 것.

34. 위 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룡 발자국 화석 연구와 그 의미
  - 한반도의 공룡 발자국 화석을 중심으로
- ② 공룡 화석과 중생대 백악기의 기후 환경
  - 공룡의 분포와 서식지 특성을 중심으로

- ③ 한반도 공룡 발자국 화석의 세계
  - 공룡과 환경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④ 한반도 서식 공룡의 다양성
  - 용각류, 조각류, 수각류의 공존을 중심으로
- ⑤ 공룡 화석 연구의 가치
  - 공룡 골격 화석의 학술적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 <보기>는 중생대 백악기 지층의 공룡 발자국 화석을 조사한 결과이다. 위 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35번과 3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 [조사 결과]
- ㄱ. 발자국 길이 - A: 평균 25cm, D: 평균 25cm
  - ㄴ. 뒷발자국 길이 - B: 평균 30cm, C: 평균 36cm
  - ㄷ. 보폭 거리 - A: 평균 230cm, D: 평균 150cm
  - ㄹ. 발자국 모양 - A와 D 모두 발톱 자국이 보이며, 발자국의 길이가 폭보다 깊.
  - ㅁ. 동일한 지층에서 공룡 발자국, 건열, 새의 발자국이 발견됨.

35. 위 글을 읽고 <보기>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와 C를 남긴 공룡은 모두 초식 공룡이었을 것이다.
- ② 이 지층은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적이 있었을 것이다.
- ③ 중생대 백악기에는 공룡과 새가 함께 서식했을 것이다.
- ④ B를 남긴 공룡은 C를 남긴 공룡보다 ‘h’가 작았을 것이다.
- ⑤ B를 남긴 공룡은 4족 보행, D를 남긴 공룡은 2족 보행을 했을 것이다.

36. ‘상대적 보폭 거리’를 이용하여 A와 D로부터 공룡의 보행 상태를 바르게 추정한 것은?

- |   |       |       |   |       |       |
|---|-------|-------|---|-------|-------|
|   | A     | D     |   | A     | D     |
| ① | 보통 걸음 | 보통 걸음 | ② | 빠른 걸음 | 보통 걸음 |
| ③ | 빠른 걸음 | 빠른 걸음 | ④ | 달림    | 보통 걸음 |
| ⑤ | 달림    | 빠른 걸음 |   |       |       |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89. 불이의 집(낮)

누군가 대문을 두드린다. 들어낸 짐을 정리하면서 어머니 돌아본다. 영희나 하고 달려가 문을 열면 얼굴이 부은 영호와 영수가 들어온다.

영호 엄마 영희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

영호 엄마 우리 파티를 하죠. 불고기 파티를……. 이거 고 집니다.

하고는 어머니에게 준다. 말없이 보다가 가져가는 어머니.

불이 얼굴은 왜 다쳤니.

영호 (빙긋 웃고) ……덕분에 고기를 얻었어요. 얘기가 좀 복잡해요.

하고 함께 마당으로 나간다.

#90. 고급 레스토랑

비프스테이크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철이 다소곳한 영희에게 다정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91. 불이의 집 마당

풍로에 불을 지피고 있는 불이. 어머니는 고기에 양념을 친다. 보고 있는 영수와 영호.

영호 다운\*은 됐지만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영수 말없이 앞만 본다.

#92. 레스토랑

영희가 접시의 고기를 서툴게 썰고 있다. 지켜보던 우철이 접시를 가져다 익숙한 솜씨로 고기를 잘라 소스까지 쳐 준다. 약간 화가 나 지켜보는 영희.

#93. 불이의 집 마당

익고 있는 고기. 식구들이 둘러앉아 고기를 먹는다. 먼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집 부수는 소리. 해머 소리.

#94. 몽타주\*

영희와 우철이 고기를 먹고 있다.  
영희를 뺀 가족이 고기를 씹고 있다.  
이들의 면모가 다양하고 자세하게 묘사되며 몽타주된다.

#95. 불이의 집

㉠ 팡팡 하고 소리 나며 흔들리면 담벽에 큰 구멍이 난다. ㉡ 커다란 해머가 구멍을 뚫혀 온다. ㉢ 구멍으로 안의 전경이 보인다. 태연히 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난쟁이 식구들이 보인다. ㉣ 담벽이 크게 무너지며 먼지가 인다. 지켜보는 인부들. 가라앉은 먼지의 마당. ㉤ 식구들이 말없이 먹기를 계속한다. 인부의 대장이 눈짓을 하면 인부들이 흩어져 앉으며 땀을 닦는다. 마지막 파티를 하는 난쟁이 일가를 기다리는 인부들. 인부들도 즐거운 낮이 아니다. 어머니가 익은 고기를 접시에다 주섬 주섬 담는다. 일어나는 어머니, 식구들이 의아하여 본다. 어머니가 고기 접시를 들고 인부들에게 간다. 어리둥절하다가 담뱃불을 끄는 인부들.

어머니 (담담하다) 고기가 얼마 남지 않았군요. 한 점씩이라도 드세요.

하며 고기 한 점을 집어 대장부터 내어 민다. 멍하니 보다가 황급히 손바닥으로 받아먹는 대장. 말없이 지켜보는 대장. 영호만이 턱을 악물

고 눈물이 글썽한다. 어머니는 계속하여 고기 한 점씩 인부들에게 나누어준다.

어머니 아저씨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아저씨들이라고 좋아서 하겠어요. 우리의 처지와 다를 것도 없을 텐데……. 집은 헐리더라도 오늘 하루 여기서 자야 해요. 딸이…… 집 나간 딸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96. 고급 맨션 앞

우철이 승용차를 몰아와 아파트로 진입하고 있다. 다소곳이 앉아 있는 영희의 모습.

#97. 불이의 집

일거에 폭삭 무너지는 담. 방문을 열고 나와 선 식구들 앞서 뽀얗게 먼지가 인다. “명희 언니는 큰오빠를 좋아해”라 쓰인 장독대가 큰 해머에 의해 부서진다. 파괴되어 가는 과정이 다각도로 보여진다.

- 홍과 각색,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 다운: 권투 시합에서 상대방의 공격으로 쓰러진 상태.  
\* 몽타주: 넓은 의미로는 편집 작업을, 좁은 의미로는 서로 다른 화면을 결합하는 방식을 가리킴.

37.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영희는 우철의 다정한 태도에 호감을 느껴 자신의 현재 처지에 만족하고 있다.
- ② 불이는 영호의 상처에 대해 물었지만 영호는 불이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 ③ 어머니는 영희에 대해 무관심한 아들들의 태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영수는 무너지는 집을 바라보며 지나간 기억을 반추하고 있다.
- ⑤ 인부들은 불이의 집을 허무는 일에 대해 기꺼워하지는 않았다.

38. 학생들이 모두 활동을 통해 ‘#95’를 지문 내용에 충실하게 촬영하려고 한다. ㉠~㉤에 대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해머 소리를 음향 효과로 제시하면서 흔들리는 담벽을 보여 준 후에 담벽에 난 구멍을 보여 준다면, 상황이 실감나게 전달될 수 있을 거야.
- ② ㉡: 담벽의 구멍을 보여 준 이후 그 구멍으로 해머가 모습을 드러내도록 촬영하면, 카메라가 인부들의 시선을 대변할 수 있을 거야.
- ③ ㉢: 담벽에 난 구멍을 통해 난쟁이 일가의 모습을 포착하려면, 카메라는 담벽 바깥쪽에 위치해야 할 거야.
- ④ ㉣: 담벽이 무너지고 인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먼지가 서서히 가라앉도록 촬영하면, 난쟁이 일가가 겪을 사태가 구체화되는 시각적 효과를 살릴 수 있을 거야.
- ⑤ ㉤: 난쟁이 일가가 식사하는 장면을 다시 화면에 담는다면, 철거 위협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는 난쟁이 일가의 태도를 부각할 수 있을 거야.

39.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나리오에서 두 개 이상의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될 때,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주 플롯’이라 하고 부수적인 이야기를 ‘부 플롯’이라 한다. 주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을  $M_1, M_2, \dots, M_k, \dots, M_n$ 이라 하고, 부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을  $S_1, S_2, \dots, S_k, \dots, S_n$ 이라 할 때, 전체 구조는  $M_1 \rightarrow S_1 \rightarrow M_2 \rightarrow S_2 \rightarrow \dots \rightarrow M_k \rightarrow S_k \rightarrow \dots \rightarrow M_n \rightarrow S_n$ 의 순서를 따르는데, 이러한 정렬 방식을 ‘교차편집’이라고 한다.  $M_k$ 에서  $S_k$ 로 전환될 때 두 장면 사이의 유사성이나 대조점을 활용하면 장면 연계가 매끄럽게 이루어질 것이며,  $M_k$ 와  $S_k$ 가 한 장면 내에서 만날 때 나뉘어 있던 두 플롯이 더욱 긴밀하게 연관될 것이다.

- ① #90, #92, #96은 부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들이다.
- ② 주 플롯에 해당하는 장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 ③ 주 플롯과 부 플롯은 #94에서 만나 동일한 공간적 배경을 갖게 된다.
- ④ ‘고기’는 주 플롯과 부 플롯을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유사성으로 활용된다.
- ⑤ 고급 아파트와 낡고 무너진 집의 대조를 통해 두 플롯을 연계한 대목이 있다.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들은 어떤 결과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은 개별적인 사례들을 통해 일반화될 수 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고, B도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다면 이런 개별적인 사례들로부터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일반적인 인과가 도출된다. 이때 개별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인과를 ‘개별자 수준의 인과’라 하고, 일반적인 인과를 ‘집단 수준의 인과’라 한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집단 수준의 인과가 필연성을 지닌다고 믿어 왔다.

그런데 집단 수준의 인과를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연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령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진술에서 스트레스는 병의 필연적인 원인이 아니라 단지 병을 발생시킬 확률을 높이는 요인일 뿐이라고 말한다. A와 B가 특정한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집단 수준에서는 그 병의 원인을 스트레스로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스트레스와 병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개연적인 관계에 놓인 것으로 설명된다. 이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집단 수준의 인과는, ‘A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병에 걸리지 않은 경우’나 ‘A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병에 걸리기도 했지만 병의 실제 원인은 다른 것인 경우’ 등의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동시에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집단 수준의 인과는 별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독립적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두 수준의 인과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들은 개별자 수준의 인과가 지닌 복잡성과 특이성은 집단 수준의 인과로 설명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가령 A의 병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의 생활 습관 등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그 요인들이 우연적이며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거치며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 개별자 수준과 집단 수준의 인과가 연관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병의 여러 요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과의 필연성이 성립된다고 본다. 개별적인 사례들에서 스트레스와 그 외의 모든 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때 여전히 스트레스가 병의 필수적인 요인이라면 개별자 수준 인과의 필연성은 훼손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집단 수준 인과의 필연성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40. 위 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일반인의 상식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② 대비되는 두 관점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 ③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상반된 견해에 대하여 절충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면서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41.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하나의 결과에는 항상 하나의 원인이 존재한다.
- ② 집단 수준 인과의 필연성은 오랫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③ 개별자 수준의 인과는 집단 수준의 인과를 일반화한 것이다.
- ④ 집단 수준의 인과는 개별자 수준 인과의 개연성으로 충분히 설명된다.
- ⑤ 집단 수준 인과의 개연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집단 수준과 개별자 수준의 인과를 독립적인 것으로 본다.

42. ㉠의 입장에서 <보기>의 (가)로부터 (나)를 이끌어 내려 할 때,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은 좋은 열매가 열리는 원인이다.
- 영희네는 좋은 씨앗을 심어 좋은 열매를 수확했다.
- 철수네는 좋은 씨앗을 심었으나 물을 제때 주지 않았다.
- (가) 아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
- 우리 집은 좋은 씨앗을 심었으나 병충해로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
- \_\_\_\_\_ ㉡ \_\_\_\_\_
- (나) 그러므로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것 사이의 필연적인 인과는 여전히 훼손되지 않는다.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처사가 말했다.  
 “제가 한 딸을 두었으나 십육 세가 되도록 혼처를 정하지 못하였삽기로 천하를 떠돌다가, 다행히 존문에 이르러 아드님을 보니 마음에 드는지라. 여식은 용렬하고 재주가 없으나 존문에 용납될 만하니, 외람하오나 혼인을 정함이 어떠하오이까?”  
 상공이 ‘처사의 도덕이 높으니 딸 또한 영민하리라.’ 생각하고 답했다.  
 “존객은 선인인요 나는 속세 사람이라. 어찌 인간 세상 사람이 선인과 혼인을 의논하리까?”  
 처사가 답했다.  
 ㉠ “상공은 아국 재상이요 나는 미천한 인물이라. 미천한 인물이 귀객에 청혼함이 극히 불가하오나 버리지 아니하오면 한이 없을까 하나이다.”  
 공이 즐겨 즉시 혼인을 허락했다.  
 이때, 상공이 친척들을 모아 정혼한 일을 이야기하니 부인이 의아해 하며 말했다.  
 ㉡ “혼인은 인륜대사라. 어찌 재상가에서 의논도 없이 근본도 모르는 집안과 경솔히 혼약을 하시나이까?”  
 하고 의논이 분분하자 공이 말했다.  
 “내 들으니 처사의 딸이 재덕을 겸비했다 하기에 혼약했으니 괜한 시비 마시오.”  
 차설, 이때 혼인날이 임박하자 혼구를 찬란하게 차려 하인들을 거느리고 금강산으로 길을 떠날새, 공은 위풍이 당당하고 시백은 풍채가 빛났다. 이런 경사에 친척과 하인 등이 웃지 않을 자 없고 조정에서도 논박이 그치지 않더라.  
 여러 날 만에 금강산을 찾아가니, 풍경도 좋거니와 때도 마침 삼춘이다. ㉢ 좌우 산천 바라보니 각색 화초 만발한데 봉접은 펄펄 날아 꽃을 보고 춤을 추고, 수양버들은 늘어졌는데 황금 같은 피꼬리는 환우성(喚友聲)\*이 더욱 좋다. 경치를 구경하며 점점 들어가니 사람 발자취가 없는지라. 하는 수 없이 주점을 찾아가 쉬고 이튿날 다시 발행하여 산곡으로 들어가니 인적은 고요하니 볼 수 없고, ㉣ 층암은 층층하여 병풍을 둘러친 듯, 시냇물은 잔잔하여 남청을 부르는 듯, 비죽새는 슬피 울어 허황한 일을 비양하는 듯, 두견성은 처량하여 사람의 심회를 돕는지라. 공이 자기가 한 일을 돌아본즉 도리어 허탄한지라. 후회막급이나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다가 날이 저물어 다시 주점에서 쉬고, 다음날 산곡으로 들어가니 심산 궁곡에 갈 길은 끊어지고 물을 곳은 전혀 없었다. 길 위에서 방황하다가 바위 위에 노송을 의지하고 앉아 허황함을 자탄하더니 홀연 산곡에서 노랫소리 나며 초동 수삼 인이 나오거늘 반겨 길을 물으니 초동이 답했다.  
 “이곳은 금강산이요, 이 길은 박 처사 살던 터로 통하는 길이운데, 우리 지금 박 처사 살던 곳에서 내려오나이다.”  
 공이 기뻐 또 물었다.  
 “처사는 집에 계시더냐?”

초동이 대답했다.  
 “옛 노인이 말하기를 ‘수백 년 전에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나무를 얹어 집을 짓고 열매를 먹으며 칭호를 박 처사라 하고 살았는데 돌연 간 곳을 모르겠다.’ 하고 말씀하는 것만 들었지, 지금 박 처사가 산단 말은 금시초문이로소이다.”  
 공이 이 말을 듣자 정신이 더욱 아득하여 말했다.  
 “처사가 그곳에서 살던 때는 몇 해나 되었나요?”  
 초동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계서 산 지가 사백 년이라 하더이다.”  
 하며 다시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가거늘 공이 더욱 막막하여 하늘을 바라 크게 웃으며 차탄했다.  
 “세상에 허무한 일도 많도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하는 수 없어 주점에 돌아와 머물새, 시백이 부친을 위로했다.  
 “㉤ 옛날 한(漢) 무제도 선술을 구하다가 마침내 구하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왔으니 후회해도 소용없사온지라. 도로 돌아감만 같지 못하오이다.”  
 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 그저 돌아가도 남에게 웃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돌아가지 않은즉 허황함이 막심한지라. 내일은 곧 전안(奠雁)\* 날이니 부득이 내일만 찾아보리라.”  
 하고 이튿날 노복을 데리고 다시 길을 재촉하여 반일토록 산중을 왕래하여 찾더라. 그날 오후에 한 사람이 갈전야복으로 죽장을 짊고 백우선으로 얼굴을 가리고 유유히 산곡에서 내려오니 반갑기도 그지없다. 일행이 고대하던 중,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반가워 눈을 씻고 다시 보니 박 처사가 분명한지라.  
 - 작자 미상, 「박씨전(朴氏傳)」 -  
 \* 환우성: 벗을 부르는 소리.  
 \* 전안: 전통 혼례 진행 절차 중의 하나.

47.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박 처사’가 혼인을 청한 것은 ‘상공’의 인품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 ② ‘상공’이 사람을 보는 눈은 평범한 사람과 다른 데가 있다.
  - ③ ‘상공’의 부인은 ‘박 처사’ 딸의 재주를 의심하여 혼인을 반대하고 있다.
  - ④ ‘초동’은 길을 헤매고 있는 ‘상공’ 일행을 측은하게 여기고 있다.
  - ⑤ ‘이시백’은 부친의 성급한 혼인 결정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4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극진한 겸양 표현을 통해서 청혼 자리의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② ㉠: 한문 구절을 끌어 와서 인물이 자기 생각의 정당성을 드러내게 한다.
- ③ ㉡: 시선의 이동에 따라 경치를 묘사하여 둘러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 ④ ㉢: 배경을 시·청각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를 잘 드러낸다.
- ⑤ ㉣: 대화 속에 고사를 인용하여 인물이 처한 쓸쓸한 상황을 부각한다.

49.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고전 소설은 현실 세계와 초월계의 교섭을 통해 신성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미학적 원리로 삼는다. 고전 소설은 초월계가 천상에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그 공간을 현실 세계의 연장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초월계를 현실 세계보다 상위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수직적 사고의 소산이며, 초월계를 현실 세계의 연장으로 설정하는 것은 수평적 사고에 해당한다. 초월계는 본래 인간의 접근이 쉽지 않는데, 수평적 사고를 취하면 그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박씨전」은 현실 세계와 초월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공간으로 ‘금강산’을 설정하고, 그곳에서 천상 존재인 ‘박 처사’의 딸 ‘박씨’와 현실 세계의 존재인 ‘이시백’의 혼인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수직적 사고를 수평적 사고 속에 아우르고 있다.

- ① ‘부인’이 ‘상공’의 혼인 결정을 수긍하지 못하는 것은 수직적 사고의 결과이군.
- ② ‘박씨’와 ‘이시백’의 혼인 장소로 금강산을 설정한 것은 신성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군.
- ③ ‘상공’이 ‘박 처사’를 쉽게 찾지 못하도록 한 구도에서 금강산이 지닌 초월계의 성격을 찾을 수 있겠군.
- ④ ‘박 처사’와 ‘상공’이 금강산에서 만나는 장면에서 초월계와 현실 세계의 소통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겠군.
- ⑤ 초월계의 선인이면서도 현실 세계에서는 ‘박 처사’로 불린 인물의 모습은 금강산의 이중적 성격과도 연관되는군.

50. ㉠에 나타난 ‘상공’의 상황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은? [1점]

- ① 이왕지사(已往之事)                      ② 자포자기(自暴自棄)
- ③ 진퇴양난(進退兩難)                      ④ 만시지탄(晩時之歎)
- ⑤ 새옹지마(塞翁之馬)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